

할렐루야! 새롭게 떠오르는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해 첫걸음을 닫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담대히 전진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발행인 칼럼

새해, 성경의 회복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2024년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새해의 첫 발걸음을 땀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신선한 새해 첫날 아침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그 찬양이 기도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 벅찬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날마다 햇빛처럼 살게 하옵소서. 갈길 모르는 아이와 같은 한걸음, 한걸음씩 인도하여 주소서. 험한 세상을 피할 수는 없어도 이길 수는 있사오니 새 힘을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귀한 글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신 필진(筆陣)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독자(讀者) 여러분께 감사와 새해 인사를 드린다. 필진 없이 어찌

신문이 만들어지며 독자 없이 어떻게 신문사가 존재하겠는가. "지난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하늘의 큰 복을 누리소서."

새해에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새해에 조금 더 집중할 일이 하나 생겼다. 필자의 머리카락이다. 지난 연말 한 성도가 샴푸를 가지고 필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필자의 머리카락을 유심히 관찰해 온 것이다.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이 사용하여 효과를 본 샴푸를 가지고 목욕실의 문을 두드리신 것이다. 자리에 앉은 그는 자신의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하면서 옛 사진도 함께 보여주었다. 필자가 보기에 팔목(肘目)할만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확실히 있었고 그 성도의 허락을 받아 머리를 만져 보기도 하였다. 그는 샴푸만 준 것이 아니다. 사용법을 상세히 적은 문서(?)까지 건네주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한 것이다. 부연(敷衍)하자면 샴푸는 그분의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롯이 필자의 머리 상황에 파스한 관심을 가진 외국인 성도이다. 지금도 그분이 건네 준 샴푸 매뉴얼을 펼쳐 놓고 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다. "What we want to do is create a condition where hair can grow strong. I hope this works for you, as it has for me." 이분은 자신이 건네준 매뉴얼대로 사용하여 필자의 머리에 회복과 변화가 있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하였다. 이제 새해에 필자에게는 그 성

도에게 샴푸 사용의 결과를 보여주고 알려 주어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생긴 것이다.

새해에 개선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이 그 기준인가. 그 모든 것들에 유일한 기준은 "성경대로"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과 그 삶을 살아가는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함께 주어졌다. 회복이라는 절실하고 숭고한 사명 앞에 그 기준과 방향이 자기 멋대로라면 더 심각한 혼돈에 빠질 것이다. 사실 "성경대로"라는 회복의 기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고백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예수님께 순종함은 없는 것(눅 6:46)과 같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에 "성경의 회복"이 앞서야 한다. 성경의 회복이란 고백과 행함이 성경 앞에 함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졸업한 신학교에는 1918년 3월 20일에 창간된 "신학지남(神學指南)"이라는 계간지가 있다. 그 이름에는 신학의 방향이 성경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성경에의 순종이어야 함을 담고 있다. 100년이 훌쩍 넘어서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 신학지남은 신학의 발전과 신앙의 열매를 성경 안에서 지향(指向)해 왔다. 신년벽두(新年劈頭)에 1983년 1월 3일 창간된 우리 신문의 사시(社是)를 되새겨본다. "바른 신학/바른 교회/바른 생활/바른 선교" 40년을 넘은 그 "바른" 것의 모든 방향도 오직 성경일 뿐이다.

신년시

새해에는



조미나 시인

한 해의 마지막 날엔
평평 눈 내리는 밤이었으면

미처 지우지 못한
빗나간 걸음들
이름없는 슬픔들
하얀 눈으로 고요히 덮는
망각의 은혜가 별처럼 쏟아지도록

새해의 첫 동이 틀 땀
소복이 눈 내리는 아침이었으면

종달새도 다람쥐도
지나는 바람도 건드리지 못한
하얀 도화지같은 새 길 위에
맨발로 서서
정결한 눈의 세례를 받도록
새해의 빛 온 세상 비출 때
하얀 소망의 땅에 누워
하얀 마음으로
새 하늘을 보았으면
모두 새 노래를 부르는 날이었으면

조미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대학원 성악과 졸업
WMU(윌드미션 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 MACC 졸업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정회원 | 시인 | 시전 동인
IAMCHURCH(아이엠교회)출석



시론
은희곤 목사

2면



신년 특별설교
엄영민 목사

4면



기독교 교육
김종환 교수

11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SEED 선교회 / 선교사 훈련

2024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

예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를 지향하는 SEED선교회가 도와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자, 장소

- 4월 1일 - 5월 9일 (ICTC 훈련원, 캐나다 밴쿠버)
- 7월 1일 - 8월 9일 (SEED Mission Center, 미국 버지니아)
(가족이 함께 하는 40일 공동체 훈련, 4월, 7월 중 선택)

대상

- SEED선교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 선교 헌신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 선교지 - 일본, 동서남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북미
- 사역 - 교육, 의료, 교회개혁, 신학 교수, BAM, 방송 미디어, 본부 사역 등

비용

USD 1,500불 (자녀 750불) 숙박 포함

등록

- 거주 국가 SEED 선교회에 가입 후 선교사 학교 등록
- SEED USA**
562-926-4700 / seedwo@gmail.com
- SEED Canada**
604-889-5800 / admin.seedcanada@gmail.com

정보

www.seedtoday.org



SEED International / Missionary Training Program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in 2024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in heart."
(Matt. 11:29)

Are you called to be a missionary?
Missions cannot be done by missionaries alone.
SEED International, which pursues missions with churches, is here to help.
We invite you to the bilingual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When & Where

- April 1 - May 9 (ICTC Training Center, Vancouver, Canada)
- July 1 - August 9 (SEED Mission Center, Virginia, USA)
(40-day community life for families, choose between April or July school)

Who can come?

- Young missionary prospects, field missionaries, pastors, and laypeople who want to join SEED.
- Mission Field - Japan, East and Southwest Asia, Africa, Europe, Middle East, Central Asia, Latin America, North America
- Ministries - education, medical care, church planting, theology professors, BAM, media, home office works, etc.

Cost

- USD \$1,500 per person (\$750 per child) Includes accommodation and meals.

Registration

- Apply first for a membership at SEED Office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n register for missionary school.

SEED USA

562-926-4700 / seedwo@gmail.com

SEED Canada

604-889-5800 / admin.seedcanada@gmail.com

Information / www.seedtoday.org

시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 터져 나오는 새해!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상처는 희망입니다.’ 한국에 가면 가난한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농사체험 농장학교입니다. 건물 뒤편에 밭이 있어 고구마를 캐는데 조금 과장하여 야기 머리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고구마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종자가 다름니까? 무슨 특별한 비료를 사용하셨습니까?” 묻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김을 땀 때마다 호미 날로 슬쩍슬쩍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고구마에 호미 날로 상처를 내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열 받아서 이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열 받은 큰 고구마’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았고 또 그렇게 나도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이 상처들을 그냥 안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로 분명히 해결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자라야 하며 그분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즉 모든 것들을 서로 작용시키셔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롬 8:28)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역사하셔서 더 큰 시련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 승리케 하시기 위한 연단과 단련의 호미질로 바꾸십니다. 그러기에 호미질은 ‘하나님의 은혜요 상처는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상처조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딤후 4:4). 받은 상처조차도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 ‘이때를 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2023년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만 분명히 서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2023년의 상처는 2024년의 희망”으로 새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다시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WHERE ARE YOU?’ (창 3:6)입니다. 죄지어 도망가는 아담(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익스큐즈하며 밟고 지나가는 우리들을,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의 풍조와 풍습과 문화에 젖어 들거나 기웃거리리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도대체 너의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이 물음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13:5)고 우리에게 특 던지십니다. 과연 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가 게을러 공명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저 영혼의 울림과 떨림 없이 끌려다녔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리였는지! 스스로의 만족과 타인들의 시선들과 의무감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품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유익과 건적이 되었는지! 세상적인 평가에 따라 움직였는지 등등을 즉,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과 떨림이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분반 공부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여리고 골짜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 물어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골사리 손가락으로 셉니다. “강도,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여관 주인 5명이네요.” 선생님 대답은 “아니야 6명이야 하나님도 계셔.”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 1명이라도 보고 있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2024년도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2024년도 역시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서로 작용시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열받은 큰 고구마로 만들어 가실려고 계속 쉬지 않고 호미질하실 것입니다. 2024년의 코람데오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카보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동행하셔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This is my story)를 항상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고백과 증언으로 터져 나오고 이야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Happy New Year!

pastor.eun@gmail.com

하나님 없음의 유혹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당연시하며 사는가?



유혹 하면 보통 마음을 끌어당기는 특정한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유혹받는 게 뭔지 잘 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 음란한 환상에 탐닉하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또는 내가 당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연민에 빠져서 쓰라린 자아의 뿌리를 키우는 모습 등이다. 유혹이라고 하면 보통 죄를 생각한다. 또한, 이기적인 충동을 떠올린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로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기를 소망한다.

간과된 유혹

특정한 죄에 대해서 선하고 경건하게 저항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행하더라도 정작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혹, 이기심의 더 깊은 근원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유혹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유혹은 다른 모든 죄악의 중심에 있으며, 개인 차원의 죄나 사소한 태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하나님 없음의 유혹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특정 성

경 가르침을 부인하는 영적 또는 종교적 사람들에 관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상생활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그는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자 저자를 내가 직접 쓰는 이야기의 각주로 축소한다.

이런 유혹을 “하나님 없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현실 대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 부재

점점 더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이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이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가장자리 여기저기를 떠돌며, 필요할 때 치료를 공급하거나 고난받을 때 위로의 원천 정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한다. 그렇게 아니라면, 나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안전하게 안주하며 내 일상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종종 개인적이지 사적 종교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

지만, 그건 언제나 우리가 만든 조건에 부합할 때이다.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자유를 침해하고, 또 욕망을 방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것은 세속 시대의 삶이 직면한 큰 유혹이다.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어 저기 어딘가 내놓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이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유혹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정작 우리를 비칠 때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유혹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당연시하며 사는가? 전능한 ‘내’가 내 생각과 열망의 중심에 있는 진짜 위대한 ‘나’를 얼마나 자주 밀어내는가? 우리의 예배, 모임과 외출, 봉사과 사역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고려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5,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담임목사청빙공고

여호수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소속이며, 미국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1대 담임 목사는 2024년 4월 예정)를 준비하며 제2대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분
3. 목사 안수 후 Full time 으로 목회 경험이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4.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5. 이중언어 설교(한국어/영어)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영어 목회에 비전이 있는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2)
4. 신학교 졸업증명서 (1)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직접 email로 제출)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한국어 설교 2회분, 영어설교 1회분) (USB, CD, 또는 동영상 링크)
7. 신앙 고백서
8. 목회 철학 (소명)
9.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여호수아장로교회 공식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5. 제출마감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제출처는 jpc1326@gmail.com 입니다.

* 문의 사항들은 이메일(cbycerim65@gmail.com, 청빙위원회 임종호 장로)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신년 특별설교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 43:5-8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원로목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역에 큰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들면서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 했던 세상이 조금은 더 조용해 진 듯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환난의 시기가 지나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었고 그 고난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물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사랑하는 귀한 가족과 이웃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 하나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서 온 세상이 다시 한 번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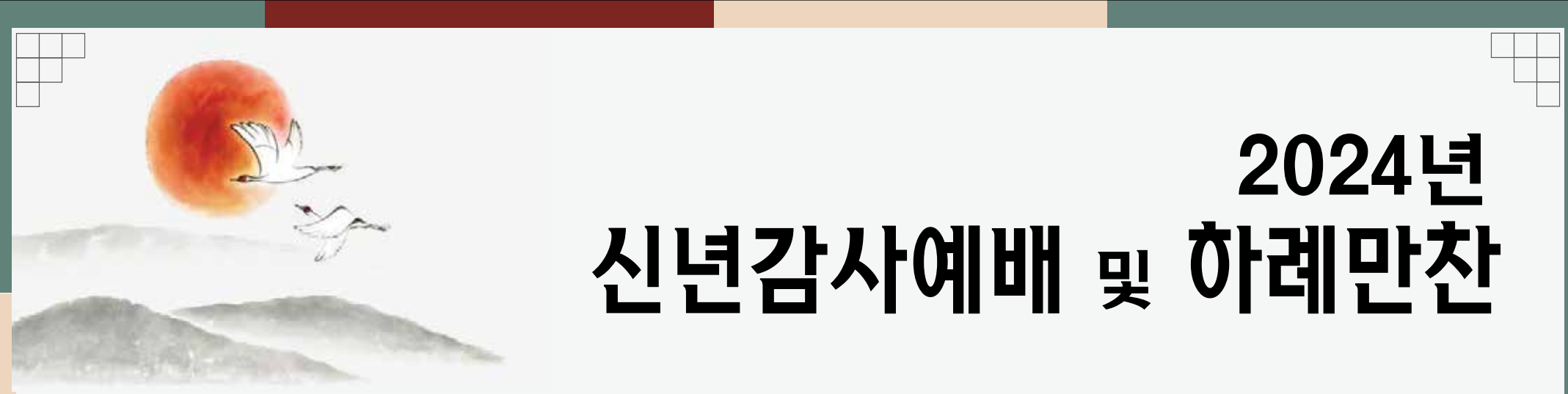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은 벌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분주해 졌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팬데믹으로 인해 닫혔던 교회의 문들만 많은 곳에서 원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큰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 큰 부흥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마저 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환난을 겪고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고 그저 주님이 속히 오시기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문

득문득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체념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는 어쩌면 이 보다 더 깊은 어둠과 절망의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분명 그런 영적 어둠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기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절망과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신과 타락의 시대에 세계복음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비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 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영적 어둠이 깊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될 듯 하고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순간 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혹은 그런 장소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에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땅 끝”이라는 단어는 분명 그런 절망적인 장소나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런 상황을 벼랑 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걸음만 더 나가고 조금만 건드리면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땅 끝의 역사를 가장 실감 있게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땅 끝의 역사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 시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땅 끝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땅 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 날 세계 굴지의 기독교 국가요 당당한 선진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땅 끝의 역사가 어찌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구속의 역사 속에서 동서남북 원방과 근방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 땅 끝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꿈을 쫓습니다. 새해에 우리 앞에 있는 영적 현실이 절박한 땅 끝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더 깊은 타락에 빠져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세상 앞에 무기력해 보이구요. 선교지에서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낙심과 체념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은 분명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pastoreom@hotmail.com



202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회원교회와 목사님들께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50회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2024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내빈들을 모시고 다음 아래와 같이 “202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 하례 행사보다는 “감사예배”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동포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소통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며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희년으로 자유하라” 을 드리는 귀한 신년하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 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5시
장 소 : KCS(한인봉사센터)
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
문 의 : 교협 사무실 718-279-1414
총무 양은식 목사 646-818-4252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 회장 박태규 목사 이사장 이조엔 권사 총무 양은식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준비위원장 유승례 목사

“새해에는 낙망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 뉴욕교회협의회 회장 -



박태규 목사 (뉴욕새침장로교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여 출발하기를 바라며 힘들었던 모든 일이 전화위복되어 도리어 확실한 행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어렵냐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교협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희년(禧年, 영어: jubilee, 히브리어: יובל, yobel)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 각자의 삶속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절대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때 능하신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낙망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만 가지시면 주님이 순간, 순간 응답하시고 도와 주실 것을 확신 합니다. 축복의 자유가 한 분 한분의 기도제목과 가정의 꿈과 하시는 사업과 섬기시는 교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응답 받으시고 주 안에서 행통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야 길 2024년 예수로 방향 삼고 살자”

- 뉴저지교협 회장 -



김동권 목사 (뉴저지새사람교회)

광야 길 2024년 예수로 방향 삼고 살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4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날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잘돼야 할 텐데 하는 기대감도 앞서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이라는 광야 길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환경이 내 삶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365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환경에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주물럭거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2024년이라

는 광야 길에서 잘 살려면 영적 나침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낮은 거리를 갈 때는 지도가 필요 하듯이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삶의 순간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푸른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365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환경에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주물럭거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2024년이라

“망각의 은혜, 은혜의 망각!”

- 필라교협 회장 -



임수병 목사 (필라사람의교회)

소식적 좋아하던 시인, 롱펠로우는 어린 시절 공중을 향해 '화살'과 '노래'를 던졌다고 했다. 오래전 던진 그 화살도, 또 오래전 가 필요 하듯이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삶의 순간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푸른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365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환경에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주물럭거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2024년이라

있고, '은혜의 망각'이 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신 약속은 말도 안 되는 '망각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 죄를 잊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 그것이 '은혜의 망각'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품은 것은 '은혜의 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품은 것은 '망각의 은혜' 때문이다.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망각의 은혜'다. 하지만 그 주님을 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의 망각'이다. 혹시 나는 '망각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자는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망각'이 아니라, '망각의 은혜'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새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의 연장전

- 대뉴욕지구안인장로연합회 회장 -



황국복 장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애독자님들과 온 교포사회와 교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가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2023년 지난해는 우리에게 이전 과거라는 역사 속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새해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실패와 실 패자의 모습을 만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연장전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 시한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오늘 생명이 있음이 귀한 복인데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생명의 가치와 함께 새 기회의 날을 허락 받았습니다. 특별히 새해 한 해에는 뉴욕에 계신 교회의 은퇴 장로를 포함한 모든 장로들은 먼저 과거의 헌신을 없던 것으로 여기고 힘 없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동행 하심으로 살아가는 매일 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백세시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허언일 뿐입니다. 현재 나이가 80, 90이던 오직 연장전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팀이나 승리를 위해 가장 힘 있게 질주하는 시간이 연장전 시간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연장전 시간을 통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저기를 친히 뛰어다니시며 선수를 코칭하시는 우리 주님의 코칭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뉴욕지구 장로연합회에선 장로님들의 연장전의 삶의 시간이 주님으로 부터 가장 칭찬받는 시간이 되도록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도와 장로회원들이 서로서로를 섬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새해라고 하는 한정된 연장전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 힘 있게 질주하시는 사명자의 승리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새해에도 더욱 발전이 있기를”

- 직전합신 총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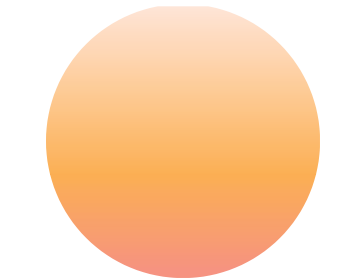


김만형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친구들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 귀하게 섬겨주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신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신문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제가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관계를 맺은 지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동안 묵묵하게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편집장으로서의 통찰력 있는 글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닦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울러 발행인의 글과 여러 목회자들의 통찰력 있는 글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닦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교계의 흐름과 시대를 따라 제기되는 목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들을 건강한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글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신문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울러 발행인의 글과 여러 목회자들의 통찰력 있는 글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닦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기대합니다.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라!”



김학진 목사 (뉴욕장로교회)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에 대해 주신 말씀이다. 우리 모두는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이라고 하는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 앞에 서있다. 설레는 기대의 마음과 걱정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호수아에게나 이 시대를 한 번 더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래

를 '완료형'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밧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3절)” 여호수아가 밧을 그 땅을 주실 것이 아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미래 완료형의 말씀으로 마음을 꼭 믿고 받아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사이에서 지금 여기(there and now)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까지라는 시간은 항상 '이미'의 미래 완

료형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된다면 당장은 지금여기의 시간에서 더욱 담대해 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 한해에도 밧게 될 모든 땅과 같은 바로 약속의 땅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도 다 이미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미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시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미래 완료형(Done!)'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 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2024년 더욱 흥왕케 하시길



정승환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문서 선교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며 섬기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김성국 목사님과 신문사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20대 퀸즈장로교회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로 보내던 당시 고 장영춘 목사님 밑에서 혹독한 목회 훈련을 받으며 종종 옆에 있던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사무실로 도피하여 직원 분들과 교제하며 어떻게 신문이 만들어지고 발행되는지 보곤 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뉴욕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주 전역과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및 교계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공교회에 대한 눈을 띄워 주었으며, 개혁신의 신학과 보수 신앙을 견지하며 내던 논쟁 및 칼럼들은 젊은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저에게 바른 신학이 바른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며 여러 논의 중 당시 발행인이었던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인터넷이 안되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을 위해 활자신문을 고집하셨고 20 여년이 흐른 뒤 그분의 해안은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금도 따뜻하고 정겨운 손에 잡히는 신문을 들고 보고 읽게 하여, 성경책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4년 선교 예산을 짜며 영생장로교회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후원금을 늘렸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은 타협하지 않고 활자신문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할 문서 선교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옆에서 신앙의 스승이자 벗으로 버림목이 되어 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며 2024년 더욱 흥왕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소중한 새해를 다시 받았습니다

- KAPC 부총회장 -



권혁전 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

2023년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2024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선에 비장한 마음으로 서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실화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3백만 달러짜리 스크라디바리우스를 시시한 껍껍이처럼 들고 연주해 보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가 지식인인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워싱턴 데팡스 지하 철역에서 말입니다. 조수아의 연주회 입장권은 수 천 달러를 호가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슈퍼스타이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격정도 이 이벤트를 준비

한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출근 시간에 조수아 벨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수아 벨을 알아보는 사람은커녕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구두 닦는 아이만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셀폰으로 통화하고 바빠 출근을 하느라 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없었지요.

소중한 한 해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바빠서, 전화하느라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날지 모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KPCA 총회장 -



서명성 목사
(팔로마한인교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다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고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포스트디모니메이션, 포스트코로나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 이민역사도 이제는 1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나 교단이 처한 목회적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전과 같은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교인들의 유입이 감소하다 보니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고령화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자영업업을 하는 동포들이 점점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18-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

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각자의 삶, 가정, 사업, 섬김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이웃을 대하여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열정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거둔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갑진 갑진년 (甲辰年)

- 윌드미션대학교 총장 -



임성진 총장

2024년은 용의 해로 불리는 갑진년 (甲辰年)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엔데믹’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로부터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 삶의 태도가 흔들리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눈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거성이라 불리는 이들,

곧 다윗이나(시 22:1-2) 엘리야도(왕상 19:3-4) 자기 앞에 닥친 고통과 환난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선함을 얻으리니’(사 40:31).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가르고 역경을 극복하며 높은 장공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에 닥친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갑진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사람’으로 사는 시간 여정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



이상명 박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동터 옵니다.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와 온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참사람만이 향유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은 예의를 갖추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평화를 전하며, 책임을 다하며, 겸손과 감사로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 눈 속의 들보보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볼 일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원대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에 기반을 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참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 둘 세워질 때 교회와 사회는 조화와 질서와 희망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내면세계를 조화롭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궁극적 지혜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날로 새로워져(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우리의 걸 사람보다는 참사람(속사람)을 더욱 키우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 C&MA 한인총회 감독 -



정재호 감독
(워싱턴제일교회)

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성탄절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해도 미주크리스천 신문 모든 독자 분들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잘 달리셨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는 코로나로 인하여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오신 독자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생업을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더욱 부어주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불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주께서 우리 모든 독자 분들을 기뻐하심으로, 모든 분들의 비전과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비상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4년을 지나면서, 혹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경우, 다음을 되뇌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신 주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2024년에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연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새해 되길”

- 예장국제총회 총회장 -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한 해가 지나간다. 금년은 유난히 빨리 간 것 같다.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 마일로 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새해가 시작 되는가 했는데 한 해가 끝나는 날이 벌써 다가온다. 한해를 돌이켜 본다. 왜 이리 빨리 지나갔는가?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린 날들은 얼마였고, 하나님을 섬섬하게 해드린 날들은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가 끝나는 날이 오듯이 인생이 시작되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끝나는 날이 있다. 끝나는 그 날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 심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한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다고 하셨다.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었는가?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그 동안 바빠서 못 보았던 친구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고생하는 어려운 사람들, 가정과 자유를 그리워하며 교도소에 갇혀있는 형제들, 집이 없어 떨고 있는 homeless를, 찾아오는 가족 없이 쓸쓸한 양노원의 노인들, 실직되어 희망을 잃은 사람들, 병상에 누워서 통증과 불편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연 말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는 새해 되길”

- OC목사회 회장 -



이원석 목사
(하사랑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3년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내전, 질병, 자연재해,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로 인해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믿는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법들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근간을 흔들며 놓았고 점점 크리스천들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024년 새해가 밝

았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모든 전쟁이 멈추고 총기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 사업장 그리고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의 팔을 높이 올리자!

- OC교회협의회 회장 -



박재만 목사
(미러클포인트교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로 췌다운 이후 2년간 끔찍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의 심장 맥박 수는 현재 회복되어져서 곳곳에서 죽는 교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오렌지카운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00여개의 교회 가운데 43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저희 교회협의회는 더 이상 죽는 교회를 방지할 수 없어 지역 교회들을 위한 응급센터를 차치하며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매년 21개씩 찾아 심폐소생을 하며 응급처치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의 심

장이 다시 뛰고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다시 뛰었다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면역력이 떨어져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Revival (부흥)’이라 부릅니다. 2024년 이 과제가 우리 오렌지카운티 교회 협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의 팔을 높이 올릴 것이며, 믿음의 야성의 포효를 세상 앞에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중단 없이 할 예정입니다. Happy New Year!

지구촌에 복음을 통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 PCA-CKC 전 회장 -



이인승 목사
(새민중앙교회)

2024년 신년을 맞이하여 먼저 미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10월 에는 가자 지대에 있던 하마스 테러단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과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새 해에는 이 지구촌의 두 전쟁들이 종식되고 이 지구촌에 모든 초조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제거되기 바란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의 복음”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한 평강의 은혜가 전 세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목회적 접근

들어가면서 “아드 폰테스(ad fontes)”는 “근원으로, 본질로”(“back to the sources” or “back to the fountains”)라는 뜻의 라틴어로,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네델란드 출신 카톨릭 사제요, 인문학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이 “근원 혹은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ad fontes” 운동은, 중세의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모토(Motto)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Textus Vulgatus)이 아닌,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 카톨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전통과 구원의 진리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ad fontes”는 진리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 모두는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별히 COVID-19 이후, 개인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과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회복과 교회의 성경적 회복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근원으로,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Ad Fontes)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짧은 지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ad fontes’ 운동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올바른 성경적 회복의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본론: 우리 시대의 ‘아드 폰테스(ad fontes)’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드 폰테스”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1: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오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1차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생활에서 돌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들이 서 있어야 할 ‘하나님 신앙’의 기초, 그 근원에서 벗어나 크게 범죄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먼저 우리들이 신앙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벗어나고, 성경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시대의 탁월한 목회자요 설교자요 신학자



김은수 목사
Global Reformed Seminary 원장
선교목회학 교수 | 선교사

였던 뉴욕 맨하튼의 리더미교회 설립자 팀 켈러(Rev. Timothy J. Keller) 목사가 지적한 대로,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각종 현대판 우상들을 벗어나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마음을 찢는 신앙의 근원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그것이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로, 신앙인이 참된 성경적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아드 폰테스”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특별히 문예부흥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 이후, 소위 이성주의 신학이 발달하여,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기 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이성에 더 권위를 두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초자연적인 권위

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목적에 따라, 단지 인간 이성에 맞는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진리, 오류가 많아 인간이성에 맞게 수정해야 할, 단지 종교적 교훈을 담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의 특별한 기독교 경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이 시대의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 인간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생각, 내 경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롬 12:2),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진정한 성경적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드 폰테스’(ad fontes)는 “성경적 경건성 회복” 혹은 “참된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회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막 14: 38, 눅 22:46)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교회 자료들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를

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참된 성경적 영성 회복이 있을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성경적 경건성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한 성경적 참된 영성의 회복! 그것이 오늘 밀레니엄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회복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아드 폰테스’(ad fontes)입니다.

넷째로는 우리 시대의 ‘아드 폰테스’ 즉 성경적 본질 회복을 위하여는 바른 성경적 원리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경적 교회의 재활성화(Church Revitalization)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과

Principles)’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근본적 원리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서는 안 될 ‘항구적 원리들’입니다. 이 근본적 원리를 토대로 ‘내적 원리(Internal Principles)’인 사역자들의 ‘비전, 사명, 기도, 헌신’ 등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구적 원리들과 내적 원리들에 기초하여 ‘외적 원리들(External Principles)’인 ‘사역 전략 혹은 사역 방법론’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 방향성(Direction)입니다. 바른 방향성은 성경의 원리들(근본적 원리들)에서 출발하여 내적원리들을 경유하여 외적원리들로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잘못된 비성경적 교회성장 운동들은 사실 이러한 방향성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즉, 비성경적, 불건전한 성장운동은 잘못된 방법 내지는 전략(외적 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내적 원리)들을 찾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성경(근본적 원리)을 통하여 합리화시키는 “역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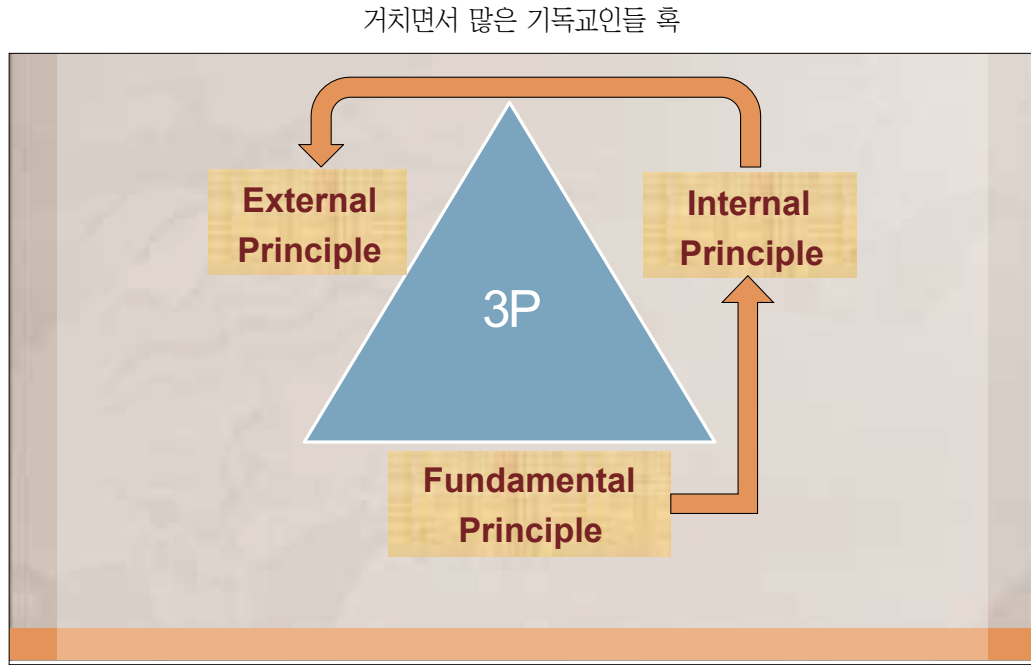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진정한 성경적 본질의 회복(ad fontes), 성경적 교회 재활성화를 위하여는 사역 원리들의 바른 정립과 함께 그 사역 원리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올바른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나아가면서 이 외에도 우리 시대의 성경적 본질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예로의 회복을 위하여는 성경적 올바른 리더십의 회복, 바른 예배 회복과 선교적 본질의 회복 등 몇 가지 요소들을 더 들 수 있겠으나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인간의 외면이 변하면 내면이 변하는 것처럼 인식하여, 종교인으로서 외면이 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가 지적하듯이,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 그것이 외면으로 표출되게 합니다(inside-out).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아드 폰테스’(ad fontes) 운동, 즉, 신앙의 근원,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globalekim@gmail.com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 시대의 ‘아드 폰테스(ad fontes)’ 운동



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근원은 자기 자신 내지는 자기의 주관적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졌고, 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잘못된 신앙은 그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곧 무너져내려 버리고 맙니다(마 7:25-2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은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 경건성 약화,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의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결정적으로 ‘기도의 침체’ 내지는 ‘기도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를 잘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실제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많은 성도들, 현대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또 하나의 근

그 방향성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 교회 재활성화를 위하여는 먼저 ‘근본적 원리들(Fundamental Principle)’과 ‘내적 원리들(Internal Principles)’과 ‘외적 원리들(External Principles)’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 혹은 교회의 성경적 재활성화를 위한 ‘내적 원리(Fundamental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건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PleuRu 김성국 목사 신간 컬렉션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선교적 접근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의 승리는 무기와 전략 개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의 현실 가운데는 무기도 필요했고 전략도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지없이 패배했다. 인간의 어떤 전략도 먹혀 들지 않았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명령도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에 자원도 필요하고 전략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럴 듯 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종종 보는 일이다.

한국 교회 선교의 한 세대가 지나면서 선교사 고령화와 선교 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수년간의 팬데믹으로 뉴노멀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꿈과 열정만으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선교와 우리 교회의 선교가 가져오는 보여주기식 선교, 중복 투자, 시행착오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도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선교로 성숙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선교 원리를 몇 가지 꼽는다면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 선교사가 함께 하는 선교, 제자를 삼는 선교,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이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선교의 사명자는 교회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기까지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교회의 인정과 목회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증을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주셨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사명자는 교회이다. 주님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주시지 않았다. 선교사는 선교의 수행자요, 선교단체는 에이전트, 즉 돕는 자이다. 사명자와 수행자와 돕는 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할 때 세계 선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상 과업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사명자의 역할은 선교 자원의 동원이다. 인적 자원(선교사), 재정 자원(선교비), 그리

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함께 선교할 때

교회가 함께 선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단 선교가 성경적이다. 미국 남침례교단은 4만7천 회원 교회가 교단에 내는 분담금의 50%를 국제선교부 예산으로 사용한다. 거기에 성탄주일 헌금은 그대로 국제선교부로 보내진다. 2023년 남침례교단의 국제선교부 예산은 총 3억3천만 불로서(교단 예산 1억 3천만 불, 성탄주일 헌금 2억 만 불) 4천7백 명 폴

남침례교단 선교사 후보는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각 지역 교회로부터 두 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모였다. 바울은 거금이 라고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두 사람이 함께 투명하게 관리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기근과 가난은 당시의 사회 문제였다. 초대 교회의 구제 사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였다. 복음이 신속하고 능력 있게 전파되었던 비결이었다. 교회가 함께 했을 때 거금을 모금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초대 교회의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였다. 선교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아니었다. 루스드라, 디베, 드로아, 빌립보, 베뢰

살아나야 한다.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할 때 성취감이 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선교사와 선교단체도 세계 선교의 사명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수행자와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확산해야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교회에 성취감을 주면서도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시스템은 가능한 것일까?

교회가 함께 선교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선교사가 함께 선교하고,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오직 한 길 뿐이다.

둘째, 함께 선교하는 교회 연대를 조직한다. 교단이나 선교단체는 소속 교회 혹은 협력 교회들 가운데 각 지역의 공동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30개 정도의 교회로 구성되는 교회 연대를 조직한다. 교회 연대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선교사가 몇 가지든지 그들을 공동으로 파송하고 지원하여 사역을 개발한다. 공동 프로젝트에 필요한 선교비는 교회 연대에 소속한 교회들이 교회 재정 형태로 따라 분담하여 지원한다. 선교사는 자신의 생활비만 모금한다.

교회 연대에 참여하면 작은 교회라도 다수의 선교사 가정들을 공동으로 파송하는 교회로서 성취감이 고취될 수 있다. 중형 교회는 몇 지역의 교회 연대에 참여할 수 있고, 대형 교회는 더 많은 교회 연대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교비 모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교회 연대를 위한 맞춤형 연례 선교 대회를 열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현장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선교지의 열매, 교회의 성취감, 선교 자원의 동원이 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성경적인 선교가 열매를 맺는다

초대 교회의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는 20세기 초에 조선 땅에서 재현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한반도를 분담하여 신속하게 복음화를 이룬 것이다.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의 열매인 한국 교회가 21세기 마지막 선교 시대에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때이다. 2024년 새해에 교회가 함께 하는, 성경적인 선교 시스템이 구현되는 이정표가 세워 지기를 기도한다.

pastorjuan@gmail.com



박신욱 선교사 SEED International 국제대표

성경적인 선교를 생각한다

고 영적 자원(중보기도)은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확신할 때 희생적인 동원이 가능하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선교 자원 동원은 희생적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교회의 가장 유능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므로 재정 자원과 영적 자원은 저절로 따라갈 것이다.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선교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업은 교회에게 최대한의 선교 자원의 동원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동원된 선교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교가 개교회의 사역이 되고, 선교사 개인의 사역이 된다면, 선교사 배치의 불균형과 중복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선교 자원의 낭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오늘 한국 교회 선교 현상이 어떠한 지 돌아보고, 성경적인 선교로의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해

지역 교회가 동원하여 국제선교부로 보낸다. 심사를 거쳐 선교사 후보로 영입되면 그날부터 생활비가 지급되고, 자녀 교육과 복지 등 모든 것이 지원된다. 2023년 한 해만 1200명이 넘는 선교사 후보가 영입되었다. 선교사들은 교단이 보내는 선교지에 배치되어 은사에 따라 팀 사역을 한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과 지역에 배치되어 사역이 중보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남침례교단의 선교 현장의 열매는 구체적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3,521명의 선교사들이 67개 새로운 미전도 종족과 지역 가운데 728,589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78,177명의 새 신자가 생겼고, 21,231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의 놀라운 결과이다.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 구제 헌금을 모금했다. 기근을 당한 유대에 보낼 목적이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등 여러 지역의 교회가 함께 했다. 재정 자원만 함께 동원한 것이 아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누가, 아리스타고 등 복음 사역자들은 여러 지역 교회가 배출했고, 재정을 공동으로 동원했으며, 함께 기도했다.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영적 자원이 희생적으로 최대한 동원되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 사람은 혼자 할 때 잘한다?

연합을 말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한국인은 혼자 할 때 잘한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한국인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한민족 정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리안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 코리안이 되어야 한다. 성경적 원리에 한국인의 장점이

첫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함께 하는 선교를 개발한다. 교단에서든 선교 단체에서든, 선교 현장에는 20년에서 3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지역마다 소속 선교사들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구제, 의료, 교육 등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또한 이미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학교육, 선교동원과 훈련, 교단 선교부/선교단체 설립 등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사역은 선교사 개인이 모금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성 사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모금하여 개인 사역이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사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선교지 철수와 사역 이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던 교회도 리더십이 바뀌면서 파송과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이 선교지마다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도 적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Gonggome, Baskin, Bannell, Boston, PCA, Alkasa, Anger, Yeung, Killeen, Westminster, Tacoma, and others.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 후 사진 촬영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는 교협”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12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새침장로교회(사무 박태규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박태규 목사는 2024년 교협 표어를 ‘희년으로 자유하라’라고 말하며 “새해에는 교회를 재정립해서 자유하고 인적자원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인사한 후 “세계 할렐루야대회에 대해 기초준비와 1차 재정지원은 끝났고 이에 예산은 50억에서 100억 정도이고 참여인원이 약 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경과보고했다. 또한 세계할렐루야대회를 어떻게 진행될지는 양은식 총무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김희복 목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사야 44:28, 45:1-7)’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처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50회기 회장 박태규 목사를 쓰실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년은 모든 것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해이다. 50회기 교협이 예수님 마음으로 통크게 나가며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다.

합심기도는 △주소록과 수첩 제작을 위해서 이창중 목사(부회장), △신년감사예배와 하례식이 지혜롭게 잘 준비되도록 유승례 목사(신년하례준비위원장), △다민족이 함께하며 시티필드에서 진행되는 세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를 위해 이승진 목사(기도분과위원장)가 인도했다.

출판위원장인 이창중 목사는 “주소록 준비를 위해 대략 100개 교회와 단체,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5만6천불 정도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라고 전하며 출판위원들과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 후 “출판위원장을 맡게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신년하례식 준비위원장인 유승례 목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조직구성을 발표했다.

2차 준비기도회는 12월 28일(목)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시무), 3차 준비기도회는 1월 4일(목) 후라상제일교회(김정호 목사 시무)에서 있을 예정이다. 202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은 손경호 목사(WPC 총회장)를 강사로 초청하여 1월 16일(화)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다.

(홍현숙 기자)



퀸즈장로교회 성탄절 연합 가족 예배 중 성극 ‘다른 길’을 공연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23 크리스마스 연합 다민족 가족 예배

“다른 길 Another Way”, 예수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당일인 12월 25일(월)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 한국어, 영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회중들이 다함께 모여 2023 크리스마스 연합 다민족 가족 예배를 드렸다. 김성국 담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그루터기 청년1부, 영, 유아, 유치부의 특별 찬양과 다민족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김수산 장로, 황태현 장로 대표기도, 연합찬양대와 중국어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김성국 목사는 “다른 길 Another Way(마태복음 2장 12절)”를 주제로 전한 설교 말씀 가운데 퀸즈장

로교회 교역자들과 다민족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성극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2000년 전 헤롯왕도 아니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임을 전했으며 이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가는 길이 참 평화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임을 설교를 통하여 선포했다. 유초등부, 유얼부, 얼통부(중국어 어린이 부서)의 특별 찬양과 성탄 헌금 시간 후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웨이스선교회 정기예배 및 사역보고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웨이스선교회, 풍성한 2023년 사역보고 및 재정보고

탄자니아 세렌게티에 성경적 가정관을 심어주며 변화의 과정 진행

세계가정회복기도 운동 및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웨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뉴욕 늘기쁘교회(김홍석 목사)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예배를 드리고 2023년 사역보고 및 재정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김홍석 목사는 “성탄을 준비하는 지혜(이사야 40장 1절 11절)”를 제목으로 설교 했다. 2023년 선교보고를 통해 탄자니아 정현 선교사, 엘살바도르1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2 조사라 선교사, 과테말라 박윤정 선교사, 파라과이 이명화 선교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가나 홍수정 선교사 등이 속한 선교지에 어머니기도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회원 어머니 자녀

장학금, 경제자립을 위한 양계장 설치, 성탄선물 등의 선교사역을 진행했다”고 보고했으며 2023년 재정보고를 통해 수입과 지출 및 결산을 보고했다. 특별히 탄자니아 세렌게티에서 사역하는 정현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세렌게티 지역은 대다수 쿠리아족으로 일부다처제는 물론 여성할례를 행하고 있어, 여성과 자녀들은 복합적인 상흔으로 얼룩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도 웨이스선교회가 지원하는 물질과 기도로 가정회복기도회를 통해 성경적 가정관을 심어주며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보내기

Jesus Mexico (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해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활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을 보내실 곳은 /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2024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4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1월 2일(화)~1월 7일(토) 오전 6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 문의: 퀸즈장로교회 718-886-4040

새벽별주님교회, 2024 신년부흥성회

새벽별주님교회(담임 정기태 목사)는 “변화된 삶”을 주제로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를 강사로, 1월 5일(금)-7일(주일)까지 2024 신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 문의: 새벽별주님교회 917-733-7387, 46-08 161st Flushing, NY 11358

뉴욕할렐루야교회, 2024년 신년 새해 말씀집회

뉴욕할렐루야교회(담임 한기술 목사)는 1월 5일(금)부터 7일(주일)까지 신년 새해 말씀 집회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한다.

▲ 문의: 718-225-0303, 149-65 45Ave. Flushing NY 11355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 및 기도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1월 8일(월) 오전 11시 2024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뉴욕심포니교회(신동기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646-708-1101, 718-909-6467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월 9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신년기도회를 개최한다.

▲ 문의: 917-682-4566, 917-750-8174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는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에서 202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연다.

▲ 문의: 646-818-4252, 845-848-2013

영생장로교회, 2024년 목사, 장로 기도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1월 18일(목) 오후 6시부터 1월 19일(금) 오후 12시까지 본교회 제 2예배실에서 영생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초대하여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용걸 원로 목사이며, 등록은 1월 14일(주일)까지 등록비는 무료이다.

▲ 문의: 정재훈 목사 267-453-8005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 봉사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임시거주 난민들에게 식사와 성탄 선물 전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난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이민자보호교회(대표 조원태 목사)와 시민참여센터는 12월 20일(수) 베이사이드 지역의 Anchor Inn(215-34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에서 지내는 난민 약 250명에게 한 끼의 식사와 약 85명의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그들은 10여개 국가에서 왔다. 가난, 내전, 폭력 등의 위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와 안정을 찾아 국경을 넘어 뉴욕까지 오게 되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우리가 사는 삶의 편리를 나누어야 하는 부담으로 난민들을 향한 냉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합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로마서 5:6)는 숭고한 신앙을 실천하

려고 난민을 환대하게 되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탄을 맞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게 되었다”고 했다. 이민자보호교회 산하, 베이사이드연합감리교회(이용보 목사)는 식사와 선물을 준비하는데 섬김의 본을 앞장서 보여주었다. 식사와 선물 배달 시기를 사전에 약속하고 갖는 데도, 난민들은 몇 시간 전부터 좁은 로비에 길게 줄지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작년 말,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으로 강제이주된 난민들을 돕기 위해 빅히크 캠페인을 벌여, 100박스 분량의 겨울 옷 등 물품과 1만 4천불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볼리비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성탄찬양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성탄찬양콘서트

볼리비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성탄찬양콘서트

센터빌한인장로교회(담임 차용호 목사)는 12월 25일(주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볼리비아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2023 성탄찬양 콘서트를 웨사 픽신학대학원(총장 김병은)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탄찬양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기금과 성탄감사헌금은 볼리비아의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지이몽 선생은 지난 15년 동안 성경을 5번 반을 붓으로 필사하며 감동받은 성경구절 300여점을 배접한 작품을 볼리비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기금으로 기부했으며 이 기부한 작품은 성탄찬양 콘서트에 참석한 기부자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차용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성탄찬양 콘서트는 찬양인도 김성훈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음악목사), 기도 박엘리사 목사(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

의회 회장), 현금기도 고유경 목사, 현금찬양 강현정 집사, 김광호 전도사(새생명교회 이종창) 순으로 진행됐다.

출연진은 솔로 박진규 찬양간사, 솔로 김인창 지휘자, 듀엣 Brothers and Sisters가 각각 찬양했으며, 클라리넷 (데본송), 위싱턴한인색소폰앙상블(단장 최봉희), 피아노(박옥량 전도사), 톱으로 성탄송(이인갑 장로) 등을 각각 연주했다. 김병은 목사(총장)는 즉석에서 시를 짓고 성시를 낭독했다.

김성훈 목사의 인도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합창한 후 김상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웨사픽신학대학원,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여성교회, 박에덴 목사가 만찬과 선물을 제공했고 식기도는 김영창 목사(안나산기도원 원장)가 했다. 성탄절 큰 은혜와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정리: 홍현숙 기자)

알림

다음 주 신문(1월6일 자)은 신년 정기휴간일로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계 기사관

열매교회 신년특새 및 부흥회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는 김경진 목사(캐나다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6일(토)~7일(토)까지 신년 부흥회를 개최한다. 또한 1월2일(화)부터 6일(토)까지 새벽 오전 6시, 토요일 저녁 오후 7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 문의: (213)385-1188

주님의영광교회 신년축복저녁예배 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신년축복저녁예배를 1월1일(월)부터 5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금난새 UCI 콘서트

금난새 UCI 콘서트가 1월 7일(주일) 오후 4시 UCI Barclay Theater에서 서울대 동창회 주관으로 열린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중섭)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지진과 전쟁 난민 구호 모금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금난새 지휘자가 '코리아-LA 챔버오케스트라'와 3명의 솔리스트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문의: snuaaconert2024@gmail.com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시무장로 & 집사 임직식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시무장로와 시무 집사 임직식을 12월31일(주일) 2부 예배시간에 거행한다.

▲ 문의: (310)618-2222

인랜드교회 은퇴식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31일(주일) 2부 예배시간에 거행된다.

▲ 문의: (909)622-2324



LA사랑의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교회탄생 17주년 및 성탄축하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교회탄생 17주년 및 성탄축하예배를 25일(월) 오전 9시30분에 드렸다. 김기섭 목사는 “오늘은 우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17주년이 되는 날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금석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영섭 장로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임다윗 전도사가 'Live, Love, Light for Christ(마 5: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본교회 유아부부터 초등부, 그리고 성가대가 함께 준비한 성탄뮤지컬 공연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창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김기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송년음악축제를 마치고 효사랑선교회 시니어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효사랑선교회 시니어대학 송년음악축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천 목사) 시니어대학(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학생들이 중심이 된 로렘나무합창단(지휘 강문수 목사, 반주 정경애 사모)이 한 한기 동안 배우고 연습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난 18일(월) 슈마교회(담임 신인철 목사)에서 송년음악축제를 개최했다. 합창 지휘를 맡은 강문수 목사는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로 시니어대학에서 합창 강사로 헌신 봉사하고 있다. 시니어대학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인 합창 연습반을 중심으로 송년음악축제가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음악 축제에서는 시니어 학생들의 합창과 더불어 난타, 에어로빅 및 하모니카, 힐링댄스도 함께 참여했다. 단장 강애니 권사는 “시니어 학생들의 가족들이 많이 와서

축하와 격려 속에 큰 박수와 함성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평생 잊지 못할 송년 음악 축제였음을 고백한다”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 밖에 없다. 특히 OC목사회가 창단한 OC 목사회가 중창단이 특별 출연해서 찬양을 함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대표 김영천 목사는 “시니어대학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워 합창과 난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어르신들을 맘껏 축하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어르신들도 포기하지 않고 뭐든 열심히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됨으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OC교협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교협 32회 총회...박재만 목사 회장으로 추대

“교협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는 32회 정기총회를 21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고 박재만 목사(미리클포인트교회, 부회장)를 신입회장으로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심상은 목사를 대신하여 박재만 목사 사회로 열린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의록서기 임명, 서기보고, 총무사여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로 이어졌다. 박재만 목사 회장, 권혁빈 목사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됐다. 박재만 목사는 “올해 암에 걸렸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함을 받았다”며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2024년에는 교협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마

음으로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엽 이사장은 “교협 이사회가 회장단을 지지하고 보호막이 되는 기능을 잘 감당해서 교협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김기동 목사(증경회장, 세리토스총만교회)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 박재만 목사 사회로 열린 1부개회예배는 민경엽 목사(OC교협이사)가 기도했으며 신용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신원규 목사(교협이사장)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행 3: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한기홍 목사(교협증경회장)가 축사했으며 윤성원 목사(교협이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영생교회 김재연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주님의 사랑 안에 폭 잠겨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생교회 김재연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23일(토) 오후 3시에 거행됐다. 김재연 목사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심에 감사한다. 여러 가지로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생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하신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성도들이 계신다. 오늘 이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LA 건강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성구 목사(합동해외총회서노회장, 하나교회)가 성경봉독을, 목사중창단이 특송 했다. 이날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 원로)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요 15:9-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수 목사는 “본 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김재연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하기 바라며 영생교회 성도들 역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바란다”며 “행복하게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폭 잠겨야 한다. 영생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가 되면 LA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 KCMUSA이사장)와 전모세 목사(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오렌지힐스한인교회)가 축사했으며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 원로)가 권면했으며 나민주 목사(성서장로교회 원로)가 클라리넷 축주했다. 이어 김재연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정시우 목사(월서장로교회 공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생교회 김재연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한길교회에서 열린 메시아 연주회 연합예배 모습

한길교회 성탄기념 메시아 연주회 연합예배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성탄기념메시아 연주회 연합예배를 23일(토) 오후 7시에 드렸다. 고광선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이상륜 목사(베리트개혁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소프라노 김미진과 베이스 보리스 마르티노비치가 특송했다. 이어 한성운 목사(나성남포교회)가 ‘메시아를 찬양하라(시 22: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백선용 목사

(God Thanks Church)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메시아 연주회는 본교회 음악디렉터인 윤임상 전도사의 지휘에 맞춰 한길교회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프라노 김도희, 엘토 정희숙, 테너 오정록, 베이스 보리스 마르티노비치가 무대에 올라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케서린 조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마치고 정종원 목사, 케서린 조, 그리고 기타연주로 수고한 김진수 집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찬양사역자 케서린 조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찬양사역자 케서린 조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Night & Light’가 23일(금) 오후 7시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케서린 조 전도사가 어린 시절 이야기와 마카오 항공 승무원으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을 믿게 된 이야기, 사역현장에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이날 케서린 전도사는 ‘오 거룩한 밤’, ‘백만송이 장미’, ‘Feliz Navida’ 등을 불렀다. 또한 정종원 목사가 찬조 출연하여 ‘그대를 향한’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2023년 OC교계 및 단체 연합 송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3년 OC교계 및 단체 연합 송년회

OC전도연합회, 장학금 전달식도 가져

2023년 OC교계 및 단체 연합 송년회가 22일(목)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 담임, OC교협 전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송년감사예배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심상은 목사가 환영사했으며 김용진 장로(OC장로협의회회장), 소프라노 지경집사가 특송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됩시다(엢 5:8-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연합사역이 쉽지 않다. 하지만 OC지역의 교협과 목사회, 장로협의회, 전도회연합회 등 교계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빛의 자녀로서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며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이웃교회와 지역을 살리고 단체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은 빛의 자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 OC전도회연합회장 사회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OC전도회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경과보고 및 진행상황보고, MK수상자 감사영상 소개, 시상, 수상장학생 인사말, MK를 위한 축복기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65명 지원자 중 35명에게 장학

금이 지급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영상으로 고은서(키르키즈스탄), 이형호(아프가니스탄), 김혜민(중국, 캄보디아), 서주영(캄보디아), 최현재(태국), 주예찬(멕시코), 박하연(인도네시아), 김준하(인도네시아), 박고은(남아공), 성주희(캄보디아), 김유하(요르단), 손하늘(캄보디아), 강정인(키르키예), 조은종(필리핀), 홍준하(태국), 황예진(엘살바도르) 학생의 인사말이 소개됐으며 미국 현지에서 유학중인 박건하, 안나, 강단열 학생이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기홍 목사는 올해 장학금 지원자중 선택되지 않은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문국 목사(연합회 초대회장) 축도에 이어 유우경 OC전도회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열린 송년회는 소망사사이티 중창단이 특별찬양했으며, 조봉남 OC한인회장, 조이스 안 부에나팍 부시장 및 시의원, 유수연 ABC 교육위원, 이후로 거주회원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테너 오위영 목사와 OC장로협의회 중창단이 특별찬양했다. 이날 송년회는 윤성원 목사(OC교협 이사) 마침기도로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계시가 대안이다 (합:1-10) 찬 363장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7세기 말)의 사역자로 알려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 멸망을 예언합니다. 첫째, 그들의 죄악상. 그 시대의 두 가지 죄악은 불의(3-4)와 불신입니다.(11)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불의와 불신과 불경건 시대 위에 임했습니다.(롬 2:18-19)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둘째, 해결책. 이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는 그 실상을 알게 하고 회개케 하며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처럼 책임진 사람이 있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계시의 빛으로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계시인 성경에 깊이 착안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유일한 대안인 성경을 깊이 깨닫는 지혜자가 됩시다.

화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합:12-2:4) 찬 399장

하박국 선지자는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근시안적 안목으로 현실을 탄식합니다.(13)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낚시, 조망, 열국을 삼키는 것으로 표현된 무자비한 그들의 광포를 안타까워하며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주권을 인정함이 믿음입니다.

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줄 알고 기다리며 주의 뜻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바울의 구원관(롬 1:16-17)을 내 것으로 삼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 고마운 책망 (학:1:1-11) 찬 375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지연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목표를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문이 닫혀 한재와 흉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첫째,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계시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임하였습니다.(1)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친히 말씀하시는 효력을 나타내심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지도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시대에 세운 학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1) 영적지도자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처럼, 안일로 병든 그들에게 책망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4-5) 그 꾸짖음이 안일을 일깨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교훈뿐 아니라 책망으로 임하는 말씀을 잘 받을 때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딤후 3:16) 주의 책망을 잘 받으십시오.

목 청중하는 마음(학:1:12-15) 찬379장

학개를 통해 주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성전을 재건한 사실을 알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냥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12)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나며 또 말씀이 임하는 곳에 겸손히 잘 듣는 마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성령이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마음 곧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14) 학개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한 일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놀라운 사건을 기대하십시오.

금 만국의 보배 (학:2:1-17) 찬 94장

목회 사역처럼 학개가 전한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깨우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책망을 듣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으나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5). 건물이 아닌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신구약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 우리는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마음 성전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고전

3:16) 둘째, 만국의 보배가 임하신다고 했습니다.(7)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골 2:3)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영광을 알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의 총만은 오직 예수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요 1:18) 셋째,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이방의 양들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스케일은 천하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모아 그들 위에 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입니다.

토 종말론 구원 (학:2:18-23) 찬 26장

종말론적 구원을 지향하는 성경의 흐름은 학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첫째, 새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여호와 경외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의 새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그 위에 임할 영광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5) 둘째, 열방의 구원을 말합니다. 학개는 열방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22) 그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맛보며 모든 민족 중, 자기 백성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셋째, 만유 구원을 말합니다.(21) 더 나아가 그 구원의 폭은 하늘과 땅 끝, 만물을 진동시키는 구원이 될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계속 일하시는 종말 시대에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기독교 교육 (40)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새해 복 많이 되세요!

낯설게만 느껴지던 2023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더니 어사지간(於斯之間)에 지나가고 벌써 2024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삶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것 같아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성장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환경문제, 지역갈등,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혼동스럽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습니다.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들은 위정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올바른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더 생각했다고 판단해서 견리망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맡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뒤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 그리고 혼동 속에서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이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하다'는 의미의 경천근민(敬天勤民), 또는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는 의미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이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에 들복날복이 가득한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복날복의 체험의 간증이 풍성한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청종하여 들복날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꿈을 꾸는 길에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겸손한 태도와 사양하는 덕을 갖춘다'는 의미의 겸양지덕(謙讓之德), '마음이 너그럽고 어질며 도량이 크다'는 의미의 관인대도(寬仁大度), '좋은 말과 착한 행실이 넘쳐난다'는 의미의 가언선행(嘉言善行), 아니면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의식(衣食)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의 가급인족(家給人足)은 어떻게 상상해봅시다.

그런데 들복날복의 또 다른 의미는 '들아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약속하시고 복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시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이루어져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크리스천들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라는 크리스천 모두가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들복날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복날복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28:1-14에 있는 말씀입니다.

2024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 그리고 혼동 가운데 새해를 맞지만 크리스천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으로써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크리스천이 많아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

jonk@dbu.edu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שה인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교회여성 나선다”

예장여연 성폭력전문상담원 배출

예장여연(대표이사 홍기숙)이 제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생 25명을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

장) 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은정화) 산하 법인인 예장여연은 성폭력상담원훈련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8월부터 관

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예장여연이 성폭력상담원훈련센터를 만든 이유는 교회 내 성폭력이 늘어나는데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여성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성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했다. 강의는 총 100시간으로 여성학과 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 인권 등 기초적인 강의부터 성폭력에 대한 법령과 법률 및 의료지원, 상담 기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됐다. 예장여연은 내년 2월 시작할 제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예장여연은 건강한 교회공동체와 가정공동체를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원 외에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신도 올해 외로우셨나요”...한국 가정 10대 ‘핫이슈’

10건 중 3건은 외로움·우울증, 세대 구조 재편 분위기도 확산 중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가 가정 관련 ‘핫이슈’를 선별해 꼽은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3건은 ‘외로움·우울증’ 등 단절된 관계 등을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하이패밀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 연결 위원회’ 발족이 중요한 뉴

스로 꼽혔다. 하이패밀리는 이 이슈와 함께 께럽 및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을 인용했다. 설문에서는 전 세계 성인 4명 가운데 1명(10억명 이상)이 ‘매우 외롭다’고 답했고,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살을 고려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이패밀리는 또 ‘100만명을 넘어선 국내 우울증 환자’ ‘90% 폭증한 어린이 우울증 환자’ 등을 핫이슈로 선정했다. 한국사회의 세대 구조 재편 분위기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2025년에 예상되는 노령인구 1000만 시대’와 함께 ‘인구절벽과 출산율 저하’ 등이다. 또 65세였던 노인 연령 기준을 80세로 높이고 56~79세를 장청년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세대구별법의 등장’을 비롯해 ‘엔딩 플래너’ ‘작은 장례식의 출현’ 등 변화하는 장례 표준도 주목해볼 만한 의제로 지목됐다. 송길원 공동대표는 “세상의 시대적 과제는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가정 사역과 마음치유 사역의 통합이 가정 사역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마음 건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한국교회가 보건의로 영성을 갖춰 외로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인구절벽 시대에 다출산 운동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이주민교회 연합 “아기 예수 탄생 기쁨 공유”

“한국교회가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주민 선교 가능”

평소 이주민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는 경기도 안산 다문화교회(박천웅 목사)는 24일 오전 나이저리아인 등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공동체인 토치라이트교회(벤자민 움바혼 목사), 콩고교회(투엘레멘지 바카켄가 전도사), 방글라데시교회(바라이 스와판 목사) 등 세 개의 이주민 교회와 특별한 성탄예배를 드렸다(사진). 이날 예배는 네 개 교회의 특송과 설교 메시지, 성찬식 등으로 진행됐다. 빨간색 의상의 토치라이트교회 성도들은 ‘헬리스 나비다드’ ‘메리의 아들’ 제목의 특송을 불렀다.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양했다. 중국국포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교회 ‘아리랑 악단’은 플루트 색소폰 건반 등을 활용한 찬양

을 받아들였다. 한편,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분, 즉 우리가 가진 위대함과 자립이라는 환상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은 옆으로 제쳐둔다. 우리가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안다면, 그래서 나를 부르신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길이 없음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조용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분이 함께하심을 갈구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얀 불빛 같은 거룩하심과 함께 다가오는 부

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개 교회 목회자들은 3분씩 메시지를 전했다. 박천웅 다문화교회 목사는 “120명 다락방에 모인 다민족 출신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다”며 “4개 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아 공유 예배를 시도했다. 앞으로도 교회 공간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다문화교회는 2017년부터 국내 이주민들의 요청으로 ‘공유 교회’를 시도했다.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대를 달리해 세 개의 이주민 교회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 목사는 “이주민들이 같은 민족의 커뮤니티를 이루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주민 선교를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 없음의 유혹

(2면에서 계속) 세속 시대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각종 활동으로 바쁘고 싶은 유혹에 항상 직면한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상적인 기독교 용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독교 신조를 암송한다... 단지 기능적 세속주의자로서.

기도하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유혹에 굴복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라진 기도야말로 내 가면을 벗기고 나의 자급자족 정신을 드러낸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현실 세계”를 권력, 정치, 일과 여가, 심지어 사역의 중심으로 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 영역과 세상의 거칠고 험난한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분법

을 받아들였다. 드러운 손길의 신성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기 세속 시대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져다준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중심 무대에 선다. 이제 중요한 건 오로지 인간의 활동이다. 우리의 목표와 열망. 우리의 전략과 기술. 우리의 목적과 계획. 영원하신 분이 단지



“국가가 좋은 선물 되도록”...尹, 성탄 예배

정동제일교회 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원한다”는 한 나이트 성도의 인사에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 전에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1시간가량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동제일교회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1858~1902)가 1886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개신교 교회다. 교회 내 본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

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린이는 윤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랑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셀카’를 요청한 청년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등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 사고로 인해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전국의 재난 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호산나교회, 미자립교회·농어촌교회와 성탄절 ‘따뜻한 동행’

교회에서 준비한 현금과 주님의 성육신 사랑 전례

부산 강서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가 25일 코로나 펜데믹 후 만 4년 만에 ‘2023년 따뜻한 동행’ 성탄감사예배를 진행했다. 따뜻한 동행은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성탄예배다. 팀별로 나눠 방문하며 교회에서 준비한 현금(50만원)과 각 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특송까지 선사한다. 호산나교회는 교구별, 다락방, 가족 단위로 총 88개 팀 850명이 시골교회를 섬기러 간다.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이지만 최장거리로는 경북 봉화군(왕복 약 420km)까지 간다. 이번 성탄절은 환경과 여건이 맞아 이 사역을 하게 돼 그동안 왜 안 오냐고 성탄절만 기다려온 시골교회엔 탄일종과 함께 기쁨의 환호성까지 들리게 됐다. 유 목사는 “따뜻한 동행은 저희 교회가 주변에 작은 교회들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특송까지 선사한다. 호산나교회는 교구별, 다락방, 가족

다”며 “항소심으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정 교주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성폭행 피해자 3명의 추가 고소 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교수는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 교주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로부터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정 교주는 이번 선고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교주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를 인신 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명석은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메시야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JMS 정명석 항소... 피해자들 “끝까지 싸우겠다”

1심서 징역 23년형 선고 받아, “진심어린 사과·피해보상 나서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교주가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JMS 피해자들은 도와은 김도형(사진 오른쪽) 단국대 교수는 “항소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

보조 역할에 그치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이란 관점을 잃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들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숨겨져 있다. 뜨거운 기도의 부재로 드러나는 하나님 밀어내기, 이것은 확실히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유혹이다. by Trevin Wax, TGC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8장 영적인 선물로서의 외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과 방어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정형화된 기도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기도, 곧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능력과 공적인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자신의 형편에 따라 기도하도록 두시는 하나님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관계와 정황과 의무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르짖을 수 있다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도의 형식은 제멋대로 만들어 낸 것일 뿐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자신의 정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맞지 않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깨달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지나 편견이나 미신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성경이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ave, '인사하다', '숭배하다')' 혹은 '크레도(credo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말한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거나 이런 저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며 거룩한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위선을 범한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다른 의무를 감당하는 데에서도 게으르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순종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롬 12:1).

2)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들 안에 일어난 은혜로운 개념들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결과였다

그들의 기도는 외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거나 사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화된 기도문의 도움을 받아 한 것이 아니었다.

3)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라는 명령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명령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과 이해로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라' '우리의 현재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게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

4) '사람들 각자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하신 모든 수단을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와 소욕과 행동을 부지런히 살피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면서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자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시험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인도해주시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시 139:23,24). 우리가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진실하게 살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이런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기도가 황폐해 가는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올바르게 유용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성향과 다양하게 다가오는 은밀한 죄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야 한다.

(2)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능력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명령들과 약속들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어떤 말과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기도할 때 어떤 말과 표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주신 성경의 내용과 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5)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조직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주신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기도의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은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더 살아나게 된다. 기도의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똑같이 기도하지는 않는다. 때로 더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그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부분적으로 그들 사이에 기도의 내용을 조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기도 에 있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에 의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서 이런 능력은 분명하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피사피대학교 교수)



아픔 속의 소망

한 해가 저물어간다. 곳곳마다 화려한 장식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을 알린다. 상가의 한복판에서 있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는 선물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동네마다 반짝이는 불빛과 예쁜 장식들로 단장한 집들이 눈에 띈다. 그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빛을 밝히는 집들도 있을 것이고 별 의미없이 절기에 따라 단장을 한 집들도 있을 것이다. 가장 슬픈 장소인 묘지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온다. 묘지 이곳저곳에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인세티아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쓸쓸하게 놓여져 있다. 베버리힐스, Brea 등 여유 있는 지역에는 온 동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해서 구경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올해에는 한국에서 다니러 온 언니 부부와 함께 리버사이드에 있는 역사적인 호텔인 Mission Inn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러 갔었다. 작년에 호텔과 인근 크리스마스 빛의 축제 점등식에 참여한 사람만 오만명, 크리스마스 라이트 구경을 온 사람이 오십만 명이라니 대단한 규모이다. 호텔 주인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 매년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한다는 정신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통하는 것이었다. 호텔 내부는 식단을 예약한 사람이나 투숙객만 입장이 허용된다고 해서 호텔 주변만 걸어 다녔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불빛들과 곳곳을 걸으며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은 길 가에 세워 놓은 Love, Joy, Hope 라는 큰 글자판이었다. 사랑, 기쁨, 소망 세 단어 모두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그중에서도 hope (소망)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지만 유난히 올 한해는 아픔이 많은 해였다. 국제적인 정세도 전쟁으로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해였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형편은 더 어려웠다. 갑작스럽게 어린 손녀들과 며느리를 남기고 떠나간 아들 때문에 가슴이 먹먹한 친구, 계속되는 불경기로 부진한 사업 때문에 동동거리는 친구,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 뼈만 남아가는 우리 언니, 사춘기를 지나가느라 손목에 자해를 하는 딸을 보며 당황스러워 하는 엄마, 암과 투병하는 제자, 남편의 분노 문제로 상담을 구하는 사모님 등... 그 아픔의 자리에는 별 소망이 없어 보인다. 나에게 그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마음만 쓰이고 애만 탈 뿐이다. 새벽기도 시간, 국가와 민족과 정부를 위한 기도를 하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눈을 감으니 말 못 할 아픔 가운데 있는 결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아닌 말없는 눈물이 흐른다. 그런데 소망이리니.

최근 몇 달 동안 마음의 슬픔을 꼭꼭 누르며 지낸 것 같다. 애써 평안을 유지하려고 몸부림 친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연한 척, 괜찮은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매우 피상적인 기도로 느껴지네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이 더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로 인해 낙심한 이웃들의 모습 앞에 저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굵은 눈물을 푹푹 흘리고 계시지도 모른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용히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네가 짊어질 그 짐을 내가 이미 대신 졌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거라." 이천 년 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슬픔과 괴롬이 많은 이 세상에 위로와 평안을 전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밝히는 불꽃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안에 담긴 소망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 빛을 찾는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내려오신, 그 어떤 크리스마스 장식보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lpyun@ap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센트럴 메모리얼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가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때 부터 의지시라
시편 71: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사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평일예배: 오전 11:30 한국어 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gcusa@yahoo.com / www.la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l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3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어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c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3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1)</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북은연한장로교회회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복화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어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714)446-6200, www.gracecmi.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어장경이 임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재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4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662-66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남일현
 141-33 33rd Ave,
 Queens, NY 11354
 Tel. (808)348-4655
 www.epcny.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배: 오전 9:30 평 일 예배: 오전 10:45 수 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p>	<p>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주일학교: 오후 8:30 (매주 1부, 3부)</p>
<p>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일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광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가나안예배: 오후 6:00 수요일가나안예배: 오후 6:00 새 별 예 배: 오전 5:45 권고인복별세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어예배: 오후 2:00 수 일 예 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 수, 금, 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또 한해를 보내고 맞으며...

2023년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때어 내고 새로운 달력을 벽에 걸며 이런 저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니, 맡겨주신 사역을 내려놓은 지금에도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낸 3만 6천 시간, '후배님들, 잘 버티세요.'"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39년간의 비행생활을 끝내고 올해 초 정년퇴임한 수석 사무장급 최고령 박경진 승무원의 기사를 읽으면서 또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경진 승무원은 21살에 대한항공에 들어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해서 39년 동안 지구를 745바퀴, 3만 5800시간을 비행하고 만 60세에 퇴임했습니다.

그렇게 퇴임한 그 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원을 해봐라,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라"는 등,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그 분은 그런 제안이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나선다'는 건 나를 내보인다는 걸 의미해요. 이름 석 자를 보이면서 빛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한 건 안 하고 싶어요. 승무원은 손님들 앞에 나서기는 하지만 나를 내보이는 직업은 아니에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손님을 존중하고 기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내 임무예요. 객실 내의 안전에 대해선 거의 박사죠. 하나하나 생소한 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나를 내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

저는 누구를 탓하고 비방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



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회사역에 몸담아 오다가 사역을 내려놓은 지 이제 6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이분의 이 글 앞에서 왜 이리도 부끄럽고 초라하게 다가오는지...

영어로 목사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미니스터(minister)"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이야기 한다면 "섬기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한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존경을 받으려 하고, 잘난 이름 석 자 알리려고 힘을 기울일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6-8)." 아멘.

지나간 한해를 또 한 페이지 추억으로 접어놓으며 다짐해 봅니다. "새해엔 좀 더 후회 없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보리라".....

책소개



이훈구 장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한 평신도의 축복된 삶이 담긴 신앙이야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출간됐다. 본서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자 이훈구 장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세 자녀들에게 전수

시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수록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갈아가면서 꼭 필요로 한 내용들을

담아내도록 성심껏 노력했다"고 말하는 저자는 각장마다 성경구절을 삽입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 가도록 꾸몄다. 또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의 삶, 가정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과 삶을 접목한 실제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본서는 1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삶', 2부 '성령 충만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 3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4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삶', 5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뉘어 26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를 추천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예정합동총회총회장)는 "저자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앞다투어 기도하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전한다"고 본서의 일독

을 추천했다. 그 외에도 박명호 교수(전 계명문화 대학교 총장)와, 김남용 대표(감사노동 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철 장로(미주한인교회 정화운동협의회 대표), 김정무 목사(대구 감사중전소 대표)의 추천의 글이 실렸다.

책 구입은 미주 기독교서점에서 가능하며 저자와의 연락은 g2gmission@hotmail.com 으로 하면된다.

(이성자 기자)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4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 제1권 주의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목자와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롯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갑절의 영광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신년주일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0권에서 발췌

Table with 2 columns: 본문(Scripture) and 제목(Topic). Includes sections for '에스라의 새 출발' and '말씀을 따라 결심함'.

설교본문: 에스라 7:7-10

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